

조선대 채진서 '金'·광주여대 김민서 '銀 2'

순천대 강수빈 '금1·은1' 제39회 회장기 대학·실업 양궁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25일 울산 문수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올림픽제패기념 제39회 회장기 대학·실업 양궁대회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수확한 김민서(왼쪽)와 채진서.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조선대 채진서가 올림픽제패기념 제 39회 회장기 대학·실업 양궁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채진서는 25일 울산 문수국제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대학부 퀴리피케이션 70m 경기에서 341점을 쏘 김필중(한체대)·최현택(서원대)과 공동 1위를 차지했다.

광주체고를 졸업하고 올해 조선대에 입학한 후 두각을 나타낸 채진서는 힘이 좋고 집중력이 뛰어나 팀 선배 이진용·김정훈(이상 4학년)을 잇는 광주 남자양궁 기대주로 부상했다.

여자대학부에서는 강수빈(순천대)이 60m에서 금메달, 5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김민서(광주여대)는 70m와 30m에서 2개의 은메달을 수확했다. 김민서 70m에서 341점을 기록하며 나민지(계명대·343점)에 이어 2위에, 30m에서는 356점을 쏘 임시현(한체대)에 이어 임하나(계명대), 김나리(한체대), 김서영(경희대)과 함께 공동 2위에 자리했다.

한편, 오는 10월 전국체육대회를 거

나해 컨디션 조절 중인 '도쿄올림픽 3관왕' 국가대표 안산(광주여대)은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다.

26일에는 남녀대학부 개인전과 혼성전이 준결승전까지 열리고 27일에는 개인·혼성 결승전과 단체전 경기가 이어

진다. 27일 열리는 결승전 경기는 SPOTV에서 중계된다. /박희중 기자



지난 23일 열린 K리그 U15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전남드래곤즈 U15 광양제철중이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드래곤즈 제공>

전남드래곤즈 U15 광양제철중 2022 K리그 U15 챔피언십 준우승

주장 장준범 우수선수상 수상

전남드래곤즈 U15 광양제철중(이하 광양제철중)이 '2022 GROUND.N K리그 U15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광양제철중은 지난 23일 충남 천안축구센터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전북현대 U15 금산중을 맞아 1대4로 패배했으나 값진 준우승을 일궈냈다.

국내 최고의 유소년 대회로 자리매김한 '2022 GROUND.N K리그 U15 챔피언십'에서 광양제철중은 조별리그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조별예선 1라운드 대구 U15에 4대1로 승리하며 좋은 출발을 알렸다. 2라운드 강원 U15에 2대3으로 분패했지만 3라운드 제주 U15에 2대2 무승부, 4라운드 김천 U15에 2대0, 5라운드 안양 U15에 3대0 승리를 거두며 3승 1무 1패를 기록, 조별 1위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박희중 기자

준결승 성남 U15와의 경기에서 양 팀은 후반전에 각 1골씩 주고받으며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중앙수비수로 활약했던 박영광은 이날 골키퍼 장갑을 착용, 승부차기에서 선방을 펼치며 6대5 승리를 견인했다.

광양제철중은 라이벌 금산중과의 결승전에서 전반을 0대0으로 마쳤으나 후반 시작과 동시에 2골을 내주며 끌려갔다. 이후 만회골을 터뜨리며 추격에 나섰다. 하지만 다시 2실점하며 준우승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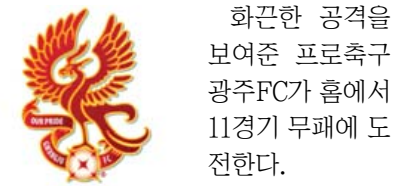
이번 대회 팀을 준우승으로 이끈 주장 장준범은 우수선수상을 받았다.

한편,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주최하는 이 대회는 K리그 산하 중등부 클럽이 참가하는 하계 토너먼트 대회로 2018년부터 진행됐다. 올해 U15 챔피언십은 22개 클럽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1일부터 13일간 천안에서 개최됐다. /박희중 기자

안방 11G 불패 'ing'

'선두 독주' 광주FC, 내일 최하위 부산과 일전

헤이스 선봉, 완벽한 공·수 조화 '골 폭주' 쏟아 적극적인 압박·빠른 역습 전략... '방심은 금물'



화끈한 공격을 보여준 프로축구 광주FC가 홈에서 11경기 무패에 도전한다.

광주는 오는 27일 오후 4시 광주 축구전용구장에서 부산아이파크와 하나원큐 K리그2 2022 35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광주가 리그 1위의 위엄을 보여줬다. 지난 라운드 서울이랜드 원정에 나선 광주는 헤이스의 멀티골과 이건희, 엄지성의 득점에 힘입어 4대0 대승을 거뒀다.

4라운드 로빈의 첫 경기를 대승으로 장식한 광주.

최근 압도적인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득점을 올리지 못했던 아쉬움을 한 방에 날려버리며 K리그1 다이렉트 승격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

현재 광주는 리그 최다득점 2위(50골)·리그 최소실점 1위(24실점)로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선보이고 있다.

최근 10경기 무패 행진(5승 5무)을 달리고 있는 만큼 강한 자신감으로 2위

FC안양과 3위 대전하나시티즌의 추격을 뿌리치겠다는 각오다.

헤이스와 엄지성의 눈부신 활약이 이어지고 있다.

헤이스는 멀티 골과 함께 시즌 11호 골을 신고하며 리그 최다 득점자 3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고 있다.

엄지성은 PK유도와 강력한 슈팅으로 헤이스의 득점에 모두 관여함과 동시에 후반 27분 시즌 7호 골을 기록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여기에 최근 5경기 2골 2도움을 기록 중인 산드로와 복귀 골을 신고한 이건희까지 더해지는 등 더 강력한 화력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상대 부산은 5승 8무 1패 승점 23점으로 최하위에 있다.

부산과의 상대전적도 8승 10무 4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올 시즌 3전 3승에 6득점 무실점까지 완벽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부산은 박정인, 최준, 김찬 등 젊은 선수는 물론 문창진, 이한도, 라마스 등 강력한 한 방을 가진 베테랑 선수들이 즐비하다. 또 최근 2경기 1승 1무로 분위



광주FC 허울이 지난달 27일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부산 아이파크와의 원정경기에서 골을 터뜨린 후팀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광주FC 제공>

기를 서서히 끌어올리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진 안 된다.

광주는 장점인 적극적인 압박으로 상대 공격을 묶고, 빠른 역습으로 다득점

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광주가 부산을 꺾고, 무패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박희중 기자



한국 여자 배드민턴의 간판 안세영(20이)이 25일 열린 2022 세계개인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16강전에서 미국의 베이원장을 제압하고 8강에 진출했다. /EPA=연합뉴스

안세영 "승부는 이제부터"

가볍게 8강 안착...세계개인선수권 女 단식 첫 금 '순항'

한국 여자 배드민턴의 간판 안세영(20)이 세계개인선수권대회 8강에 진출했다.

세계 랭킹 3위 안세영은 25일 일본 도쿄 메트로폴리탄 경기장에서 열린 2022 세계개인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16강전에서 세계 16위 미국의 베이원 장을 2-0(21-12 21-10)으로 가볍게 제압했다.

세계개인선수권대회 사상 한국의 여자 단식 첫 금메달을 노리는 안세영에게 베이원 장은 적수가 되지 못했다.

안세영은 26일 같은 장소에서 중국의 한웨이 왕즈이가 맞붙는 16강전 승자와 8강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안세영은 경기 뒤 "상대 선수가 예전에 엄청 잘했던 선수여서 특히 긴장을 많이 했다"면서 "부모님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더 많이 긴장했는데 경기를 잘 풀어나간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같은 시각 여자복식 16강전에선 이소희(28)·신승찬(28)이 말레이시아의 비비안 후-림 시우시엔을 2-0(21-12 21-6)으로 제압하고 8강에 올랐다.

지난 대회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이소희·신승찬은 이번 대회서 한국의 28년 만의 여자복식 금메달에 도전했다. /연합뉴스

배우 김하영, 내일 두산戰 KIA 승리기원 시구

'서프라이즈 여신'이 챔피언스 필드 마운드에 오른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는 오는 2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즈와의 홈경기에서 배우 김하영(사진) 씨를 초청, 승리기원 시구 이벤트를 개최한다.

KIA 타이거즈 열성팬인 김하영 씨는 이날 시구자로 나서 KIA의 승리를 기원한다.



김하영 씨는 MBC '신비한TV 서프라이즈'에 출연 중인 배우로, '서프라이즈 여자 개' '서프라이즈 김태희' '서프라이즈 여신' '프로 시집 리' 등의 별명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박희중 기자

환상 수비로 MLB 출신 샌디에이고 김하성

한국인 첫 골드글러브 보인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주전 유격수로 자리매김한 김하성(27)은 지난 22일 워싱턴 내셔널스전에서 몸을 던진 수비로 미국 전체에 이름을 알렸다.

관중석에 들어가는 파울 타구를 몸을 던져 건져낸 장면은 구단 공식 유튜브에서 83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이는 올해 샌디에이고 구단 영상 가운데 조회수 1위다.

포지션 베스트 플레이어 성격인 KBO리그의 골든글러브와 달리, MLB 골드글러브는 오로지 수비 실력만으로 최고의 선수를 뽑는다.

유격수 자리에서 꾸준히 '하이라이트 필름'을 생산하는 김하성을 두

고 현지에서는 이미 리그 최고 수준의 유격수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한국 선수 중에는 아직 한 명도 골드글러브를 수상하지 못했다. 내야수로 범위를 좁히면 일본 선수조차 한 번도 상을 타지 못했다.

현재 여러 수치를 확인하면, 김하성은 내셔널리그 유격수 부문 유력한 수상 후보 가운데 한 명이다.

김하성은 베이스볼 레퍼런스 기준 수비 대체선수대비 승리기여(WAR) 1.7로 내셔널리그 유격수 가운데 3위에 올라 있다.

무엇보다 김하성이 최근 인상적인 수비로 이름값을 키운 것도 수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투표권을 가진 30개 구단 감독과



샌디에이고 유격수 김하성이 지난 22일 열린 메이저리그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홈 경기 6회초 펜스와 충돌하면서도 파울 플레이를 잡아낸 뒤 유격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인스타그램 캡처>

코치는 자팀 선수에게 표를 줄 수 없다.

다른 팀 선수의 수비를 시즌 내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화제가 되고 유명한 선수에게 표가 쏠

릴 수밖에 없다. 지금의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면서 임팩트 있는 활약을 다시 펼친다면, 김하성의 골드글러브 수상도 꿈만은 아니다. /연합뉴스